

장흥 간척지 대규모 스마트 팜 조성

군. 에너지기업들과 '블루에너지 팜' 협약...삼산 간척지 일대 1조5000억 투입

장흥 간척지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유리온실 등 신재생에너지를 결합한 대규모 스마트 팜이 조성된다.

장흥군은 최근 SK에코플랜트 이왕재 BU대표, 현대일렉트릭 박상훈 BU대표, 교보약사 오주석 BU대표, 하이퓨얼셀 이형영 대표, 블루에너지팜 신현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블루에너지 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기관은 장흥군 관산을 삼산 간척지 일대에 1조5000억원을 들여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와 대규모 유리 온실을 갖춘 블루에너지 팜을 조성하기로 했다.

블루에너지 팜은 신재생에너지와 스마트 팜(지능화 농업시스템)을 결합한 융복합산업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서 나오는 전기, 열, 이산화탄소를 온실 운영에 활용,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를 통해 지역 6차 산업 기반 확보를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 농업의 단지화, 규모화로 생산, 가공, 유통, 체험, 관광까지 아우르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군과 참여 기업들은 대규모 단지 조성과 전문적인 기술결합을 위해 대기업 민간투자를 통해 사업



김성 장흥군수(왼쪽 세번째) 등이 '블루에너지 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장흥군 제공>

을 진행할 예정이며 주민설명회를 통한 주민공감대 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토지매입(임대), 환경영향평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농업 6차 산업의 집약체인 신재생에너지 블루에너지 팜 조성을 통해 일자리창출

은 물론 군 인구 늘리기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며 "장흥군과 투자기업의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력관계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장흥=김용기 기자·중부취재본부장 kykim@

창평 달팽이 쉼터, 마을학교 됐다

공예·독서 지도 등 주민·초등생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평 달팽이 쉼터가 최근 문을 열고 마을주민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사진)을 운영하면서 슬로마을이 활기를 띠고 있다.



담양군 창평면 달팽이 쉼터가 오는 11월까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 지역민들과 아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면서 참여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매주 월요일에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공예·인문학 교실과 차예배를 위한 인지놀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시니어 세대는 전통 채반짜기 기술을 전수하고 주니어 세대는 스마트폰 사용법과 네일아트 기술을 알려주며 세대 간에 공감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는 초등학생을 위한 마을학교 프로그램으로 공예체험과 전통놀이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동화책을 기증받아 아이들의 독서 지도와 책 놀이수업도 병행하고 있다.

후에 아이들이 갈 곳이 없었는데 가까운 곳에 마을학교를 운영해 줘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고 있는 꿈꾸는 마을학교의 김미선 대표는 "다양한 문화예술 공모사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지역민이 문화예술 향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슬로시티 군 전역화에 따라 방문자센터와 달팽이쉼터를 재정비하고 사용단체를 공개 모집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

돌머리해수욕장서 뱀장어 잡으세요

8월15일까지 참가비 1만원

깨끗한 갯벌과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한 함평 돌머리해수욕장에서 뱀장어잡기 체험행사가 열린다. 뱀장어잡기 행사는 오는 30일과 8월 3일, 8월 15일 3회에 걸쳐 진행하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뱀장어는 1인당 2마리까지 잡을 수 있으며, 잡은 뱀장어는 현장에서 구워먹을 수 있다.

체험 입장권은 1만원 상당의 농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다.

돌머리해수욕장은 8월 21일까지 운영하며, 해수 풀장과 원두막, 갯벌탐방로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특히 광주에서 가까운 뿐만 아니라 깨끗한 갯벌과 아름다운 낙조, 상쾌한 소나무 숲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돌머리 해변 일원에 조성한 글램핑장에는 바비큐장, 침실, 화장실 등 최신 편의시설을 갖춘 글램핑 5동이 해변가 바로 앞에 위치해 있어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캠핑도 가능하다.

해수욕장 인근에 주포한옥마을과, 해수찜 치유센터, 주포노을 토요마켓 등 지역의 주요 관광 지들이 인접해 있어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한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지난해 열린 화순 명품 복숭아 문화축제.

화순 복숭아 문화축제 3년만에 대면 개최

30~31일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화순군이 화순복숭아연합회영농조합법인(대표 박장영) 주관으로 30일부터 31일까지 2일간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제12회 화순 명품 복숭아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화순 명품 복숭아 문화축제(이하 복숭아 축제)는 화순 복숭아의 우수성 맛과 품질을 알리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행사다. 올해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다.

복숭아 축제 첫날인 30일 난타 공연, 벨리 댄스, 변경 미술 등 방문객을 위한 사전 공연을 한다. 개막식에서는 복숭아연합회 소속 13개 작목반에

서 출품한 복숭아 당도와 과실 크기 등을 심사해 대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13명을 선발, 시상할 계획이다.

31일에는 복숭아 가요제가 열린 예정이다. 풍각도영, 남진이 등 초대가수의 공연도 진행된다.

축제장 한쪽에는 품평회 출품작을 전시하고 농가들이 복숭아를 판매하는 복숭아 품평회장도 마련된다.

화순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화순의 대표 농산물인 복숭아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농가의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나주시, 농기계용 면세유 인상액 지원

1만 l 이상 사용 최대 183만원

나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와 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 면세유(휘발유·경유) 인상액 일부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22억원의 예산을 확보,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면세유류의 경우 l당 183원, 7월부터 10월까지 사용한 면세유류는 l당 269원을 정액 지원한다.

단 면세유 28 l 미만 사용자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1만 l 이상 사용한 농업인에 대해서도 최대 183만원까지만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농협에서 면세유류를 발급받은 나주시농업인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해당 지역농협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나주시의회도 지난 26일 '농업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농업용 면세유 지원 촉구 건의안'을 통해 "우리 경제의 바탕을 이루는 농업 경제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한다"며 시의 면세유류 지원 예산 확보에 힘을 보탤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면세유 지원사업은 시와 시의회가 한 뜻으로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적극 협력한 결과"라며 "농업인의 부담을 덜고 경영 안정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강진군, 강대찬벼 조기 정착 간담회 열어

강진군은 최근 '최고품질 강대찬벼 생산 협의체'를 꾸리고 강대찬벼 조기 정착을 위해 생산농가, 재종농가, 농협통합RPC, 농업기술센터가 참여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 강진군 지역 맞춤형 품종인 강대찬 생산단지 조성, 농협통합RPC와 연계한 최고품질 브랜드쌀 유통 판매를 목표로 생산 농가에 공동농작업 실천, 질소질 비료 감축, 병해충 방제 및 적기 수확 등에 대한 공감대를 나누고 현안을 공유했다.

사회를 맡은 안준석 작물연구팀장은 현재 벼농

사 생육시기에 맞춰 이삭거름 적기·적량 시비를 강조했으며, 채취된 농협통합RPC 대표이사는 단백질 함량 등 강대찬 벼의 철저한 품질 관리를 부탁했다.

강진군은 현재 약 500ha 이상의 면적에서 강대찬 벼를 재배하고 있다.

이중 연말에 판매할 최고품질쌀 생산단지 원료 곡은 농업기술센터의 전필지 포장심사 및 생육관리 등을 거쳐 출하하며 농협통합RPC를 통해 유통할 계획이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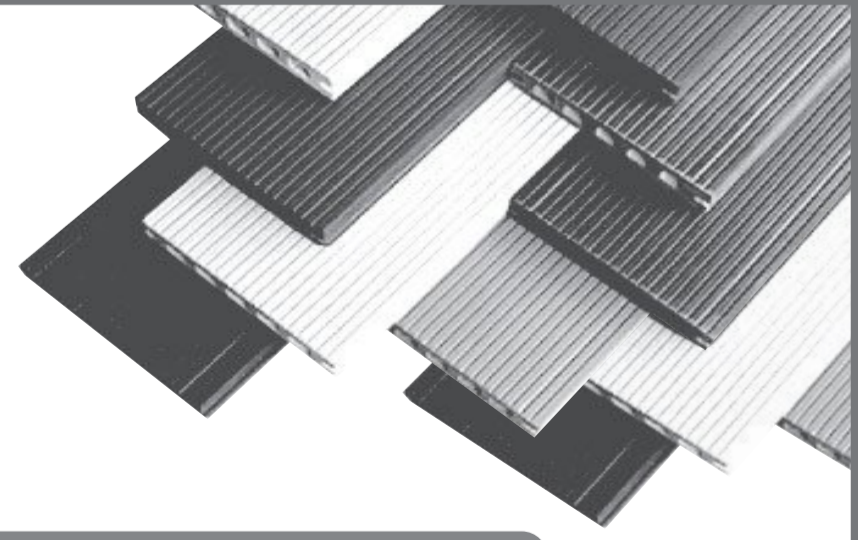
논슬립 디자인데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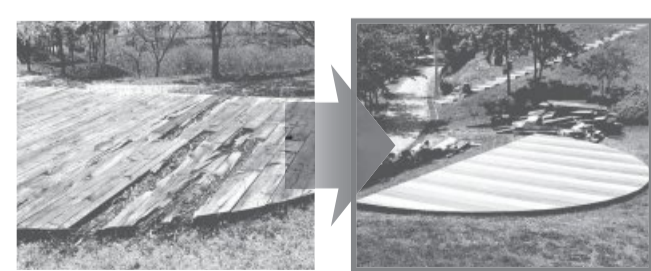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